

지구촌 양계뉴스

..... 프랑스 AI 방역 총력, 닭고기 소비 촉구

조류인플루엔자(AI)의 변종인 H5N1 바이러스 감염이 프랑스로 확산된 가운데 프랑스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방역 조치들을 서두르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닭고기 소비를 촉구했다.

크사비에 베르트랑 보건장관은 지난 2월 20일 LCI TV와 회견에서 H5N1의 인간 감염에 대비해 타미플루와 레렌자 등 항바이러스제 1천400만개와 방독면 2억5천만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르트랑 장관은 “H5N1 바이러스의 인간대 인간 감염 사례가 아직 지구상에는 없지만 그럴 위험이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주 전국의 모든 가금류를 가둬 사육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린데 이어 기술적으로 가둬지지 않는 3개 도(道)의 오리들과 거위들에 2월 22일부터 백신 주사 접종을 허용했다.

정부는 또 지난주 죽은 오리가 H5N1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발견된 동부 앵 도(道)의 문제 지역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도미니크 뷔스로 농업장관은 19일 유럽 1 라디오와 회견에서 닭고기 식용을 중단하지 말라고 촉구하면서 AI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계업자들에 대한 재정 지원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전역에서 7억 마리 가까운 가금이 사육되는데 가금 소비가 이미 15%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

..... 미국 · 일본 등 43개국 프랑스산 가금류 수입금지

미 농무부가 2월 25일을 기해 프랑스산 가금류의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전세계 43개 국가가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우려로 프랑스산 가금류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가장 최근에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미국을 포함, 일본, 인도, 남아공, 러시아, 캐나다, 멕시코 등 43개 국가는 프랑스산 가금육 수출의 12%를 차지한다.

미 농무부는 2월 마지막 주 칠면조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견된 프랑스 에인(Ain) 지방에서 생산된 산 조류, 가금육 및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프랑스 관련업계는 그나마 미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에인 지방에 국한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다른 나라에서도 프랑스 전역에 대한 수입금지보다는 발생지역에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뉴욕aT센터/USDA, Just-food

..... E U
소비자들에게 가금육 안전성 강조

유럽연합(EU)은 지난 2월 20일 확산 중인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가금육은 안전하다”며 진정을 호소했다.

또 프랑스, 네덜란드 등 일부 회원국들은 닭, 오리, 거위 등 가금류들에 백신주사를 놓기 못하고 EU 집행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마르코스 키프리아누 EU 보건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회원국 농업장관들과 AI 대책회의를 가진 후 브리핑에서 “유럽 소비자들이 가금육을 소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시장과 식탁에 나오는 가금육 제품들이 안전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EU 순번제 의장국인 오스트리아의 요셉 프렐 농업장관도 “공포에 빠질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키프리아누 위원은 EU는 농장에서 사육 중

인 가금류에서 AI가 발병할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동물질병을 다뤄온 수십년의 경험을 갖고 있다고 거듭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려 했다.

이 같은 발언은 AI 공포로 가금육 소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탈리아,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들이 집행위에 대해 EU 법규에 금지된 가금농장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EU는 가금류 수출 규모에서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EU 25개 회원국 가운데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등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H5N1형 AI 바이러스가 백조 등 야생조류에서 발견됐다.

- 브뤼셀=연합뉴스

가금류 백신 주사 허용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육내 사육이 어려운 가금류에 대해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을 막기 위해 백신 주사를 놓겠다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요청을 승인했다.

프랑스는 기술적으로 가금류 육내 사육이 힘든 랑드, 루아르-아틀랑티크, 방데 등 3개 주에서 오리와 거위 약 90만 마리에 대해 백신주사를 놓을 계획이다. 네덜란드도 놓아기르는 암탉 수백만마리에 주사를 놓을 예정이다.

가금류 백신주사는 비용이 들고 주사 놓기 자체가 힘들다는 점외에도 AI 바이러스 변종이

발생할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었다.

집행위는 성명에서 “가금류 백신 프로그램은 특정지역의 특정 조류에 한해 허용되는 것으로 엄격한 감시와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특히 “백신 주사를 맞은 가금류는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와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르코스 키프리아누 EU 보건담당 집행위원은 백신 플랜이 EU의 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실시될 경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철새가 이동하는 봄이 다가오는 만큼 회원국들은 AI 차단을 위한 가능한 모든 방역조치들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브뤼셀=연합뉴스, 이상인 특파원

은 21,415원으로 전년대비 101.5%이고, 돈육의 구입량은 17.259kg로 전년대비 99.6%, 지출금액은 23,039원으로 전년대비 98.3%(동 105.4%)였다.

- 케이메이신문

이바라키현, AI 문제로 수의사 2명 체포

AI 문제로 일본 이바라키현경은 지난 2월 27일 닭의 항체양성반응을 현에 제출하지 않는 등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제출의무위반, 검사방해)의 혐의로 양계회사 아이케이엔(愛鷄園)의 수의사 2명을 체포했다.

현경 조사와 이바라키현에 의하면 아이케이엔의 수의사는 작년 8월 하순 운영하는 이바라키현 내 3양계장의 검사에서 다른 양계장의 닭에서 채취한 검체를 3양계장의 검체와 달리 제출해 현의 검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현의 조사에서는 동사의 다른 3양계장에서도 검사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아이케이엔의 수의사는 작년 지인의 독립행정법인 동물위생연구소 직원인 수의사에게 비공식으로 AI검사를 의뢰하여 항체양성반응이 나왔으나 현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 교도통신

..... 일 본

2005년도 1세대당 계육 소비량 6% 증가

일본 총무성 통계국이 지난 2월 15일 발표한 2005년도의 가계조사결과에 의하면 전국 1세대(세대인수=3.15명)당 계육의 구입량은 11,596kg로 전년대비 106.0%, 지출금액은 10,728원으로 전년대비 105.4%로 AI로 소비가 감퇴하기 전(2003년)의 소비수준으로 돌아섰다.

계란의 구입량은 30.710kg로 전년비 99.5%로 연속 전년대비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출금액은 연간 평균난가(JA젠노 도쿄M)가 204원으로 호조를 보여 8,840원, 전년대비 111.7%였다. 우육의 구입량은 7.21kg로 전년대비 101.4%, 지출금액

..... 독 일

가금류 방목금지 조기 시행 고려

독일 정부는 지난 2월 13일 유럽에서 조류인



플루엔자(AI)가 확산됨에 따라 가금류 방목 금지 조치를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 농업부 대변인은 당초 3월 1일부터 가금류 방목 금지를 시행하려 했으나 유럽 각국에서 속속 AI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방목 금지 조치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은 지난해 10월 유럽에서 AI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12월 중순까지 독일 전역에 가금류 방목 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터키에서 발견된 AI 바이러스는 이탈리아, 그리스, 불가리아 등지에서도 속속 확인되는 등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전세계 20개국에서 AI가 발생했으며 적어도 166명이 감염돼 이중 8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 베를린=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태 국**
유럽산 닭 수입 전면 금지

태국 정부는 앞으로 90일간 유럽 7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의 닭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럽국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5N1이 발견됨에 따른 조치다.

태국은 주요 가금류 수출국 중 하나이면서 유

럽산 닭(사육용)의 주요 수입국이기도 하다.


태국은 올해들어 100만 마리의 닭을 이미 유럽에서 수입한 상태. 태국 정부는 90일간 유럽 국가들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조치 상황을 지켜본 후 닭 수입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농수산물무역정보

..... **스위스**
가금류 방사 금지 조치 재도입

스위스 정부는 인접국들의 야생 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가금류의 방사(放飼)를 금지했다.

스위스 연방각의는 지난 2월 15일 검역국의 요청에 따라 전국 720만 마리의 닭과 오리, 거위 등에 대해 20일부터 방사를 금지키로 결정했다. 방사 금지 조치는 10월 25일부터 12월15일까지 근 두달 동안 적용된 이후 처음이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며칠간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스의 야생 조류에서 AI를 유발하는 H5N1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오스트리아와 슬로베니아에서는 감염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스위스 정부는 AI가 전파될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음달부터 야생 조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스위스는 지난해 두달 가량 야생 조류 800마리를 잡아 바이러스 유무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 제네바=연합뉴스